“우리는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광주-울산민족미술인협회 특별전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내달 20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전국 39팀 민중미술작가, 노동의 위기와 위험 예술로 풀어내

‘노동의 위기와 위험, 예술에 담다.’

광주와 울산 미술인들이 노동을 예술로 사유한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펼쳐낸다.

광주민족미술인협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울산민족미술인협회와 함께 특별전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정신이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과 대동세상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더하는 교류전으로, 영호남 작가 26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민족미술작가 39명(팀)이 함께한다.

전시 주제인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은 본래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과 다른 역설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해야만 하는 노동은 사회구조로 인해 위험에 내몰렸다. 미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직시하는 창작을 위험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전시 주요 작품인 박은태 작가의 ‘노동산수도1’는 안전모를 쓴 한 남성 노동자가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의 발밑으로부터 개울, 바위를 타고 여러 가닥의 전선이 지나고 있다. 익숙한 휴식 풍경이 위험한 사고 직전의 상황이 된 것. 여전히 위험한 노동 현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뜨개질연대 프로젝트 ‘같이 뜨개더’

박태규作 ‘불꽃202411’

대구의 ‘같이 뜨개더 프로젝트’는 2년째 옵티컬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소현숙과 루치아, 최지혜, 김미련 작가가 함께 뜨개질로 연대와 치유를 실천해 오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여성들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동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상징적 행위인 뜨개를 통한 작품과 영상을 선보인다.

박은태作 ‘노동산수도1’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야외공간에 3m 높이의 거대 설치 작품이 눈길을 끈다.

파견미술팀의 현장 실천적 작품이다. 파견미술팀은 현장에 스스로를 파견시켜 시각적 언어로 농성현장의 상징물을 만들어 상황을 알리거나 집단 창작하고, 숨 막히는 현장을 아름답게 수놓는 작업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륭전자, 삼성반도체, 태안발전소 김용균 등 대형 설치물을 선보인다.

박보나의 미디어 작품 ‘1967-2015’는 영화 노동자 폴리아티스트 이충규 씨가 1967년 구봉광산 붕괴사고에서 매몰됐던 광부 김창선 씨의 구출과정을 6개의 작은 단위의 소리로 구현한 작품이다. 백보림, 성백, 오민수 작가의 영상 작품과 박경렬 작가의 3D 영상작품 ‘지금 다시, 전태일 정신’ 등 다채로운 미디어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노동과 오월의 불꽃을 그린 박태규 작가의 ‘불꽃202411’, 울산 윤은숙·이루·김병학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 ‘생과 사의 유연’ 등 노동의 위기와 위험을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병택 광주민미협 대표는 “이번 전시작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나타난 민주·인권·평화와 관련한 사건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노동의 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존중 세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꿈 향한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뮤지컬

30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꿈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창작뮤지컬 ‘나를 노래해’ 공연을 펼친다.

뮤지컬 ‘나를 노래해’는 요즘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해 권기원 상임지휘자 취임 이후 선보인 창작뮤지컬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올해 수정·보완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공연은 한 초등학교 음악교사 나중심과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유진을 비롯한 문제아들과의 갈등을 다룬다. 반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꿈을 심어주는 음악코치 하늘에 의해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진실한 음악을 만나게 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사진

권기원 지휘자는 “아이들이 무대 위 주인공이 돼 이끌어가는 뮤지컬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펼치는 노래, 연기, 춤 등 다양한 모습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정순애作 ‘가을의 설레임’

감성을 적시다 자연을 느끼다

19회 포아트 회원전…내달 1-15일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메마른 감성을 채워줄 연말 따스한 사진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진동호회 포아트의 제19회 회원전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열린다.

‘자연을 느끼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정순애·장상기·차광자·박미라·배광열·오경남·차우현·김동화·김은경·손문권·유영미·이미영 12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출품작들은 가을 길목에 들어선 들꽃의 향연부터 겨울을 배경으로 한 포근한 자연 풍경, 해질녘 바닷가, 늦가을 고즈넉한 풍광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정순애 포아트 회장은 “이번 전시는 사진에 대한 애틋한 마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그동안 담아온 소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올 한 해 감성을 움직이는 사진 작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하월, 달이 내린다’

도예가 이치헌 초대전…오는 30일까지 예술이빽그라운드

전통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독특한 형태의 다구를 선보이는 도예전시가 마련됐다.

도예가 이치헌 초대전 ‘하월, 달이 내린다’가 오는 30일까지 예술이빽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통 다구의 멋스러움과 현대적 미감을 더한 다구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담아내오고 있는 작가의 달 항아리 작품 등 총 100여점의 도자기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된 모든 작품은 올해 제작한 신작들로, 달항아리와 솟대를 비롯한 다양한 다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흙과 불, 바람의 조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가의 달항아리에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순수한 매력이 느껴진다.

오는 30일에는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도예를 알아가는 토요강좌도 열린다. ‘흙불바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차를 마시고 도자기를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226-2446.

/최명진 기자

무료로 드립니다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